東大新聞

發行人 鄭在晃
編輯人 崔世榮
印刷人 方又榮
主幹 洪起三
編輯局長 洪申斗
編輯部長 林翼斗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護國團간부 退陣결의"

——첫「학년 대표자 회의」에서

代行機構 구성 논의도 學生總意모아

眞正한학생 대표자 회의

학원의 民主化·自律化·自治化의 부르짖음과 때를 같이해 각학과·학년대표로 구성된 의가 11日(火) 오후 2時 현행 학도호국단 개선및 총학생회 부활문제에 따라 崔世和학생처장이 참석한가운데 本館 교수 표자 1百47名중 1百9名및 학교의 立場을 밝히기 위한 대표자 참석(불참자 2名) 등을 시작했다.

세미나실에서 학생측의 입시대행기구로서의 기능을

이 회의冒頭에서 崔世和 학생처장은 『학생총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完全한 총학생회로 간주되는 학년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現 시점을 기해 본회의에서는 민주, 서로의 의견의 피력는 자연스러운 퇴진등제의 상호 추천과 제청에의 상호극복 조화해야 할것은 그에따라 의해 총36표를 얻은 이복우 이라 말했다. 또한 『政治發展과 더불어 학원의 민주·자율화의 부르짖음이 本校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처장은 『학생총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完全한 총학생회로 간주되는 학년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現 시점을 기해 본회의에서는 민주, 서로의 의견의 피력는 자연스러운 퇴진등제의 상호 추천과 제청에의 상호극복 조화해야 할것은 그에따라 의해 총36표를 얻은 이복우 이라 말했다. 또한 『政治發展과 더불어 학원의 민주·보여줄것』을 당부했다. 한 (송가·4) 군이 잠정적인 사회자로 선출되었다.

이 회의는 본건에 들어가기 전, 원활한 회의를진행하기 위해 학내 제반문제에 치우치는 편견이 없는 사회의되는 제반 안건은 파반수 동과로 하며 경주대의 대표자 참석을 유동적으로 결시하고 의사정족수과 반수인 69名과 74名(경주대 학년대표 참석할경우) 을 통과 결정했다.

이어 학도호국단 즉각폐지등의 본건에 들어갔다. 기능정 측건등 학년분제의 비리와 호국단간부의 영에 관한 본건에서는 전평 기능의 측건등 학년분제의 을 없애고 전권에 교육관 계의 조정을 명하주는것등 이다.

◇11일 학년대표자회의가 교수회의실에서 있었다.

實驗試藥및 조자센터 開館

自然系 實驗및 研究 새 局面에

本校 과학관(관장=金直燮교수)에서는 80學年度제1학기부터 자연계열 각과의 연구및 학생실험에 기여하기 위한 실험 시약및 초자를 중앙공급식「홋시스템」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諸般의 준비를 완료한 지난3일(月) 鄭在晃총장및 各學處長이 참관한가운데『시약및 초자센터 開館』이 있었다.

이 센터는 지난해 2월 2일 학교당국의 후원으로 2천5백여만원을 지원받아 시약, 아세트알데히드外 1천2백96종(約逸 Emerk 제 일판도입분 3만천7백45병)과 초자류, 「흡류 수 제조공진」외 2백13종(국내 오메가제 1차도입분)을 구입, 국내 최다의 시약과 稀貴品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계자는 「이번 2월 중

사설

大學의 使命

大學의 自律性은 部分的으로 留保되어 왔다고도 볼수 있다。또 한편으로는 대학 스스로의 不備로인해 그 使命에 소홀했던 點도 솔직 ... 대학의 自律性은 部分的으로 留保되어 왔다고도 볼수 있다。또 한편으로는 대학 스스로의 不備로인해 그 使命에 소홀했던 點도 솔직 ... 합의에 의해서만 비로소 그 使命이 다해질 것이라 본다。

그동안 文敎當局에 의한 일관된 政策의 남발로인해 大學이 이에 보조를 맞추는데 급급하였고 大學自體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제한함으로써 學園의 자유는 侵害되었고, 그로인해 學園內의 의사가 그속에서 그렇수 없었고, 이것이 급기야는 외부에 대한 부정의 과정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막을수 없었다。

文敎當局은 大學을 規制하거나 統制한다는 思考方式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大學을 支援하는 자세에서 大學이 방면하고 있는 苦衷이 무엇인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를 政策에 반영시키는데 과감해야 할 것이다。또한 大學人들의 主張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表出하는 見解나 主張이 最低의 노력에 의해서 貴徹될수 있도록 그 轉換裝置의 機能을 수행해줌으로써 그외의 努力은 바로 大學人 本然의 學問 硏究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誘導해 나가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學校當局의 입장에서는 所信과 自信感과 責任感을 함께갖춰 도록 당부하고싶다。學園 自律化란 大學스스로의 責任下에서 國家的, 社會的 要請에 附合하면서 外部의 勢力에도 屈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大學에 주어진 使命을 誠實하게 이행해 나갈수 있을 때만고 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大學當局은 所信을 갖고 學生을 指導함에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이어 하며 스스로의 權威性 立을위해 權力追從이 아닌 社會正義員現에 앞장 설 수 있는 勇氣도한 갖추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大學自體가 內的한 不便한 制度의 改善에 인색하거나 나태해서는 아니될 줄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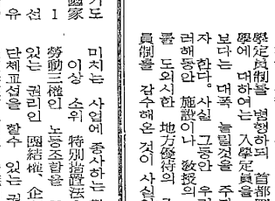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 싶은것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지금 우리나라는 國內外的으로 그리고 대내 보다도 어려운 시점에 처해있다。급격한 社會變化의 변화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너무나도 많은 주장과 요구가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들 愛容 吸收할 한 能力이나 장치가 부족한 이때에 성급한 일방적인 요구는 또다른 혼돈을 초래하게될 위험마저 안고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 學校當局로는 東國의 옛 전성기를 다시 찾기위한 발전에의 기틀마련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全敎國人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不測이 결처서는 아니되겠다。「내 立場」에서만이 아닌「相對方의 立場」에서 생각할수 있는 寬容性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소이가 바로 여기에있다。

發展한다는것은 사회분화가 이루어짐을 뜻하며, 이 분화란 바로分業의 개념으로 풀하는바 「社會問題」란 말과 같이 모든 국민이 애국심으로 충만해있는 현시점에서는 정치는 政治家에게 국방을 軍人에게 일임시키고 의학은 학생 본연의 자세에서 후일을 위해 박차를 가하도록 몸과 마음을 보다 건전한 학생들의 그간의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보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前轍이 되지않도록 우리 모두의 共同努力을 촉구한다。

卒業定員制

○○○○



<文理大교수·英語學>

요즈음 卒業定員制 얘기가 심심치않게 전개되고 있다。오랜동안 묶어놓았던 入學定員制를 완전히 철폐하고 卒業定員制로 代替해야된다는 주장도 이 있는데 卒業定員制가 施行되다 보는 대폭 늘릴것을 주장하고 자 한다。사실 그동안 우리는 보아 러해동안 施設이나 敎授의 확보 를 도외시한 地方發待의 入學定 員制를 강수해온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앞으로 地方大學들이 施設을 제대로 갖추고 敎授陣을 확보할때까지는 서울所在大學들의 地方大學校를 제외한 모든 地方大學들의 入學定員의 增加는 신중을期해야 할일이다。

반면에 서울大를 비롯하여 本校를 포함한 屈指의 首都所在 私立大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定員을 增加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것이다。

그리고 卒業定員制는 이러한定員制下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해부터 실시하되 그 운영방법은 細心한 연구와 검토가있어야될 것이다。

그동안 大部分의 首都所在私立大學들이 不當한 入學定員制의 强行으로 因하여 일동의 高血壓症에 걸렸던 事實을 냉철히 비판하고 반성해서 當局은 모름지기 順理에 맞는 高等敎育政策을 펴나갈 것을 要望해 마지 않는다。

大學閑話

勞動·民主는 상호발전 관계

都産·YH사건 규제법에 대한 통기

勞動3권·「勞動部」승격등 논의 활발

<經商大교수·國際經濟學>

趙 昌 華

1、머리말

지난10월은 35回를 맞는 韓國勞總의 生日인 勞動節이었다。본래는 1886年5月1日 美國의 손노동자가 일을 쉬면서「8時間勞動制」를 요구하는 示威를 하였는데 시카고에서는 많은 勞動者와 警察官이 충돌하여 손등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날 世界各國의 勞動者에 의하여 행해지는 메이데이의 起源인 것이다。그러나 오늘날 美國에서는 메이 데이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9月의第1月曜日을 레버 데이(勞動祭) 그리고 日本勞動總同盟에서는 다 같이「民主主義없이 勞動運動은 조직될수도 없다。그러나 民主主義는 노동조합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듯이 勞動運動이 전심하게 발전할 수 있는나 없는나 하는 것은 民主主義가 어느정도 발전되어 있느냐 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고 또 民主主義가 어느 정도 發展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그 勞動組合에 달려 있다。

이하에서는 1960年度의 韓國民主主義가 어느정도였으며 따라서 노동운동이 처했던 어려움이 어떠하였던가하는 것을 살펴 볼까 한다。그리고 나아가서 1980年代 韓國勞動運動을 展望해 보고자한다。

2、60年代의 勞動運動

①許政 過渡政府時時代

1960年度의 초기에는 自由黨의 長期獨裁政府이 學生들의 國民들의 憤憤들도 그리하여 이와같은 환경하에서 勞動運動은 開花期를 맞이하였다。

許政內閣시대에는 노동자들의 많은 요구조건이 제기되었으며 특 제1주의를 제시하였으나 勞動法은 중점의 법을 記錄하였다。그러나 民主黨內의 新·舊派의 알력은 國民을 실망시켜 놓았다。

過渡政府는 政策을 펴나가지 못하였다。

(註無三社가 통합되고, 석탄계 알들의 構想은 좋았으나 자원열악 에는 問題가 많았고 직장은 운영자금문제로 문을 닫는것이 많았다。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매일 요구조건을 내걸고 시위하게되니 長安에는 示威群衆들이 범벅이 되고 있었다。

보건사회부가 조사한 統計에의하면 1960년 한 해동안의 勞動爭議件數만도 2,927件에 참加人員이 6만4천3백35명에 달했는데 이는 前年度의 1959년度의 95件 發生에 4만9천8백13名에 비하면 놀라운 증가라고 할 것이다。특히 勞動爭議의 발생건수에 있어서는 1953년 韓國動亂이 끝난 이후부터 自由黨의 全 統治期間에 발생한 件數와 맞먹는 것이었다。

③5·16이후의 軍政時代

1961년 5월16일 未明에일어난 軍事革命은 한국현대사 過程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그어 놓았다。

기 쉬운가? 또, 어느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생리에 맞나? 잘못된생각이라고 한다。

4、80年代 勞動운동의 展望

이미 國家비상사태선언이 걷우어지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9조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라서 지금까지 규제되었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규제를 받지않게 되었다。한편 한일공정 과정에서 某위원은 이윤均銜報에 대하여도 발언한바를 보면히 보았으며 오늘의 방송에서는 某정당의 총재가 노동의 3권문제에 언급하고 평문成長率을 8·3%로잡고 1人當所得 123弗을 제적하였다。

5、70年代의 勞動運動

이상과 같은 경영환경하에서는 민정 이양후 한 차원의 時點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이에따라서 同 12월27일 國家保衛에관한 特別措置法이 공포되었는데 그 제5條는 다음과 같다。(國家安保障會 議決 第1號에서 1971년12월6일 다음과같이 선언하고 있다。「최근 中共의 유엔가입을 비롯한 國際情勢의 급변과 이의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및 북한傀儡의 남침준비는 국가의 안전과 민족의 번영에 직접 위협하고 있는 제양상들을 政府는 이에 주시함과 본 결과 현재 大韓民國은 安全保障上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여당의 黃善吉의원 등 5명과 야당의 錢鎭萬의원등 5명의 서명을 받아 請願書를 준비하였으며 민주당은 韓國勞總案을 無修正채택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다。이와같이 당시 遮斷勞動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지를 크게 받고있었던 것이다。그러나 그후 그의 개정등 제도시행을 골자로 70년대에는 거두지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3、70年代의 勞動運動

越南이 越南에 합병되고 韓國의 주변정세가 韓半島에게 불리하게 돌아 갈 뿐만 아니라 故 朴正熙대통령은 장기집권을 기도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國家安全保障會 議決 第1號에서 1971년12월6일 다음과같이 선언하고 있다。「최근 中共의 유엔가입을 비롯한 國際情勢의 급변과 이의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및 북한傀儡의 남침준비는 국가의 안전과 민족의 번영에 직접 위협하고 있는 제양상들을 政府는 이에 주시함과 본 결과 현재 大韓民國은 安全保障上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여당의 黃善吉의원 등 5명과 야당의 錢鎭萬의원등 5명의 서명을 받아 請願書를 준비하였으며 민주당은 韓國勞總案을 無修正채택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다。이와같이 당시 遮斷勞動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지를 크게 받고있었던 것이다。그러나 그후 그의 개정등 제도시행을 골자로 70년대에는 거두지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6、80年代의 勞動運動

이상 소위 特別措置法 9條로서 勞動三權인 노동조합을 조직할수 있는 권리인 團結權 企業主와의 단체교섭을 할수 있는 권리인 團體交涉權 그리고 爭議의 권리인 團體行動權이 없는 勞動組合의 입장이 무의미하다는것은 그도 말두도 이해할 일이다。

그렇게도 不公正하고 大産別에서 不平하나 掘起하지 못하고 있었던것은 시초부터 産別組織에 깊숙이 개입하여왔고 어떻게 보면 그 개입에 의하여 勞動組合組織이 성립되어있다고도 볼수있는 바로 조합의 합법적인 반발한다면 組織內의 합법적인 반대를 각 더나 의적인 운동하여야 할것이다。都市産業傳導會의 사업이나 YH事件등은 이와같은 특별법이나 제도에서 解放되고자 하는 비장한 각오에서 봉기되었던 것이며 勞動者들의 인권을 되찾고자하는 애절한 몸부림이었다고 볼수있다。

7、80年代 勞動운동의 展望

이 시점에서 勞動組合은 그간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여당의 錢鎭萬의원 등 5명과 야당의 錢鎭萬의원등 5명의 서명을 받아 請願書를 준비하였으며 민주당은 韓國勞總案을 無修正채택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다。이와같이 당시 遮斷勞動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지를 크게 받고있었던 것이다。그러나 그후 그의 개정등 제도시행을 골자로 70년대에는 거두지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8、80年代 勞動運動의 展望

이상 소위 特別措置法 9條로서 勞動三權인 노동조합을 조직할수 있는 권리인 團結權 企業主와의 단체교섭을 할수 있는 권리인 團體交涉權 그리고 爭議의 권리인 團體行動權이 없는 勞動組合의 입장이 무의미하다는것은 그도 말두도 이해할 일이다。

그렇게도 不公正하고 大産別에서 不平하나 掘起하지 못하고 있었던것은 시초부터 産別組織에 깊숙이 개입하여왔고 어떻게 보면 그 개입에 의하여 勞動組合組織이 성립되어있다고도 볼수있는 바로 조합의 합법적인 반발한다면 組織內의 합법적인 반대를 각 더나 의적인 운동하여야 할것이다。都市産業傳導會의 사업이나 YH事件등은 이와같은 특별법이나 제도에서 解放되고자 하는 비장한 각오에서 봉기되었던 것이며 勞動者들의 인권을 되찾고자하는 애절한 몸부림이었다고 볼수있다。

9、80年代 勞動운동의 展望

이미 國家비상사태선언이 걷우어지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9조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라서 지금까지 규제되었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규제를 받지않게 되었다。한편 한일공정 과정에서 某위원은 이윤均銜報에 대하여도 발언한바를 보면히 보았으며 오늘의 방송에서는 某정당의 총재가 노동의 3권문제에 언급하고 평문成長率을 8·3%로잡고 1人當所得 123弗을 제적하였다。

10、80年代 勞動運動의 展望

그럼에 나의 소망이며 高度産業社會의 추세로서는 단체교섭의 정상화는 말할것도 없고 勞使協議制度는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것을 알아야하고 그 경영참가제도는 기업주나 노동자 측에게도 같이 이로운 ①所有者 利潤의 참가 ②組織과 運營管理 참로서의 참가 ③技術및 情報로서의 참가를 명심하고 이에 참가하여 욱구불만을 찾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끝으로 勞動組合에서는 고차적인 運動을 더욱 연마하기 위하여 經營者가의 방법을 考察하여야할 것이며, 勞動運動의 민반에 깔려있는 團體交涉力의 강화에 대하여서는 한치의 여유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이와 같이 힘을 배경으로 한 勞使協議制度의 구비가 80년도 이나라의 노동운동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勞使協議制 설치, 經營參加制로 발전 바람직"

<사범대학장·독어교육론>

김 성 배

다시 고치는 헌법은 한글로만 써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민 누구나 알아야 할것

고유스러운 말과 과학스러운 한글 살려야

헌법은 만민의 것이지 어느 특수한 사람들만의 헌법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까지나 한국 헌법고치는 본들의 반성과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 때 때문에 島國로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땅은 한반도와 여기에 딸린 섬이다(섬으로 한다)。

어느 것이 읽기쉽고, 쓰기 쉽고, 알 기 쉬운가? 또, 어느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생리에 맞나? 잘못된생각이라고 한다。

그럼에, 무엇이 어떻게 된 셈인지, 1972년 10월에 다시 고쳐 꼼포한 헌법은 거의 전부가 어렵고 까다로운 한문자와 한자어, 그리고 어색한 일본말투의 글로 표기되어 전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하여 큰 지탄을 받아오고 있는 터이다。

나라의 체통과 권위와 겨레의 긍지를 꺾고, 우리말과 한글을 더럽히고 욕되게한 헌법이 없도록, 부끄럽고 없어지는 헌법은 우리말과 쓰기 쉽고 알기 쉬운 한글이 연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침없이 왜 그러한 짓을 하였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작년 10월26일 사태후, 헌법을 다시 고치는 작업이 각계 각층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알아지만, 또 다시 그러한 허물이 생길까봐 적정스러워 여기 긴급 동의를 제기하여 놓는도, 어부도, 상인도, 공원들도,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어야하고, 이해할수 있는 헌법이라야만 헌법의 구실을 다할수 있다。

한문자나 어는 체하고 의지하는 사람과 한국민족을 위한 헌법이지 특국이나, 일본이나, 그 밖의 다른 나라나, 외국인이나, 어느 한정된 특수한 사람을 위한 헌법은 아니나, 한국민이라면 한국 민족이라면 누구든지 읽어 알아야할 헌법이다。국민학교 어린이들도, 할수 있는 것이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일인 동시에, 청사에 빛날 더 과업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월 1일자로 관계 요로와 인사들에게 보낸 건의서를 참고로 제시한다。〈1面참조〉

세계의 모든 나라의 헌법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로 되어있다.

역사이래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에서는 모두 자기나라의 말과 글자로 헌법을 표기하여 쓰고 있었다고 들었다。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인제든지, 어디서나, 마음대로 읽고 있다는 속시이다。그런데, 하필 한국만은 어째서 빈곤하고 고유스럽고 말과 과학스러운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와 글자로 헌법을 표기하여 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국회·사법부·행정부 심의 위원회·법률학자가 참여하는 일 은 그 전문성이나, 일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쥐어도 나라의 기틀이요, 기둥이요, 교육의 뿌리를 건고히 하고 말과 글을 다듬는 일이기에 반드시 그 방면의 전문 학자들이 참여하여 보다 품격한 헌법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빨리, 바르게 터득할 수 있도록해야 된다。그렇게 하는 것이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일인 동시에, 청사에 빛날 더 과업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여기 지난 2월 1일자로 관계 요로와 인사들에게 보낸 건의서를 참고로 제시한다。〈1面참조〉

卒業定員制

<文理大교수·英語學>

해버린다는 것은 교수와 시설의 현황으로 봐서 우선 不可能한일이다。아니 철사 敎授와 施設이 넉넉하다손 치더라도 無制限으로 新入生을 모집해도 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義務敎育도 아니요, 職業訓練 一種例가 될수도없는 일이니 無制限 門戶개방이란있을 수가 없다。

결국 우리는 卒業定員制와 入學定員制를 병행하되 首都圈의大學에 대하여는 入學定員을 현재 보다는 대폭 늘릴것을 주장하고자한다。사실 그동안 우리는 보아러해동안 施設이나 敎授의 확보를 도외시한 地方發待의 入學定員制를 강수해온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앞으로 地方大學들이 施設을 제대로 갖추고 敎授陣을 확보할때까지는 서울所在大學들의 地方大學校를 제외한 모든 地方大學들의 入學定員의 增加는 신중을期해야 할일이다。

반면에 서울大를 비롯하여 本校를 포함한 屈指의 首都所在 私立大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定員을 增加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것이다。

그리고 卒業定員制는 이러한定員制下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해부터 실시하되 그 운영방법은 細心한 연구와 검토가있어야될 것이다。

그동안 大部分의 首都所在私立大學들이 不當한 入學定員制의 强行으로 因하여 일동의 高血壓症에 걸렸던 事實을 냉철히 비판하고 반성해서 當局은 모름지기 順理에 맞는 高等敎育政策을 펴나갈 것을 要望해 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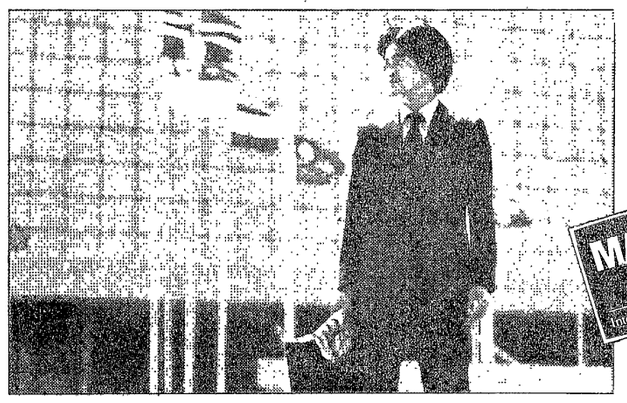
신사복은 이렇게 입어야 합니다③

옷을 바르게 입는 데 도움을 주는 글

묻다 서양 사람들의 옷인 양복을 한국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적응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신사복 "캠브리지"를 만들고 있는 서울 삼봉양복주식회사 학술부에서 국제 양모 사무국의 자료 협조를 받아 신사복의 모든 점보를 분석 정리하여 1979년에 이어 1980년 한 해 동안에 걸쳐 전국의 각 대학 신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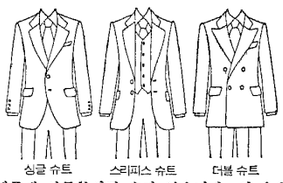
CAMBRIDGE 캐미브리지 ALL NEW WOOL 1979 國際우모협회

비지니스에서 성공하려면 사무복의 이런 특성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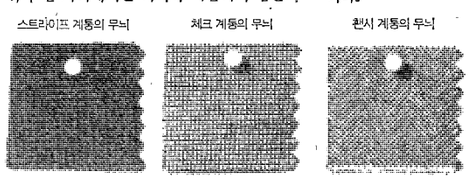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복 한 벌로 직장에도, 관혼상제의 예식이 있는 자리에도, 놀이 가는 데에도 입고 나가고, 심지어 집에서도 달리 입을 옷이 없어 양복 바지를 그대로 입고 지내는 것쯤은 보통이었읍니다. 나라 살림이 넉넉지 못했던 때라 그런 단벌 신사 노릇은 크게 흉잡힐 일도 아니었고, 경우에 맞춰 옷을 입지 못한 것은 오히려 당연했었읍니다. 그러나 하루가 달리 국제 교류가 잦아지는 요즈음, 경쟁이 불꽃튀는 비즈니스의 사회에서는 옷차림도 경쟁에서 이기는 데에 큰 몫을 합니다. 사무복은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오피셜 웨어(Official Wear)를 우리말로 흔히 부르는 이름이며 넓은 뜻으로는 남자들이 입는 옷 가운데 공적인 자리에서 입는 옷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 옷은 신중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좀 예의를 갖추어야 할 자리에 어울릴 수 있도록, 두드러진 빛깔과 무늬 그리고 지나치게 유행을 따른 디자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생김새는 우리가 이제까지 입어 온 보통의 양복처럼,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정장 중에서 블레이저 슈트를 생각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읍니다.

이 사무복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고리 앞자락이 외줄 단추로 된 옷을 꼽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가다마에, 서양에서는 싱글 슈트라고 하는 옷을 말합니다. 싱글 브레스티드 투피스 슈트(Single Breasted Two Piece Suit)가 온전한 이름이지만 그저 싱글이라고도 합니다. 이 옷에 같은 천의 조끼를 받쳐 입는 옷이 스리 피스 슈트(Three Piece Suit)이고, 이 두가지 옷과는 달리 저고리 앞자락이 두 줄 단추로 된 옷을 일본에서는 료마에, 서양에서는 더블 브레스티드 슈트(Double Breasted Suit)라고 하며, 보통 더블이라고도 합니다. 싱글 슈트에 비하면 상당히 고전적인 관록이 있는 옷이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대담하게 입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웬지 이 옷을 유행에 민감한 멋쟁이들의 옷으로 치는 듯합니다.



싱글 슈트 스리피스 슈트 더블 슈트

사무복은 아래-위를 같은 천으로 짓는 것이 원칙이며 이 옷을 다른 옷과 구별하는 데 결정적인 몫을 하는 것은 빛깔과 무늬입니다. 검정색이 아닌 무늬 없는 천이나 무늬가 있더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톤의 천, 예를 들어 사악스킨이나 헤링본 무늬와 같은 핀시 계통의 천, 또는 가늘고 폭이 좁은 줄무늬 계통의 천, 그리고 아주 작은 체크무늬 계통의 천이 사무복에 맞습니다. 눈에 확 띄는 빛깔과 무늬로 된 옷이라도 아래-위를 같은 천으로 지은 것은 흔히 사무복으로 보는 일이 많은데 이런 옷은 아무래도 차분한 느낌을 주기가 어렵고, 좀 예의를 갖춰야 할 자리에서는 더더욱 어울리기 힘들기 때문에 사무복이란 수가 없음니다. 이 옷을 짓는 천의 조직은 특별히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표면이 고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사복은 보통 소모로 된 천으로 짓는 데 개버딘이나 프난넬도 많이 씁니다. 특히 사무복은 일상 생활에서 입고 활동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옷이므로 튼튼해야 함은 물론 경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성복이나 이지오더를 이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스트라이프 계통의 무늬 체크 계통의 무늬 핀시 계통의 무늬

사무복의 성격에 너무 조심한 나머지 답답한 느낌을 주거나 딱딱하게 굳어진 차림이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의 패션의 흐름에 따라가는 한 범위 안에서 디자인은 물론 빛깔과 무늬를 골라 개성을 살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간편하고 활동적인 멋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옷을 입을 때는 전체적으로 정결하고 단정한 차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일이 첫째입니다. 좀 예의를 갖추고 활동적이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주며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정한 옷차림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다음 차례에는 자유복에 대해서 전해 드리겠읍니다.

캠브리지의 진가는 입고 활동하는동안에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CAMBRIDGE 캐미브리지

삼봉양복주식회사●본사/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300-27 전화792-5116, 794-4900●본점/한강맨션 한강쇼핑센터2층 794-2892●롯데매장/롯데쇼핑센터2층771-25(3214) ●롯데 아케이드 매장/롯데 1번가 107호 779-0786●신세계 매장/신세계 백화점3층 778-2729 ●미도파 매장/미도파 백화점3층 22-4637 ●종로매장/종로1가 서울뉴헤럴 건너편 73-1829●소공 매장/소공동 소공장 건너편 28-5866●신촌 매장/신촌 로타리 외환은행 옆 33-3979●영등포 매장/영등포 시장 영보극장 건너편 62-4143●연신내매장/불광동 미도파 슈퍼 2층 388-2927 ●인천매장/인천시 내동 72-6233●수원 매장/수원 삼원 백화점1층 [이지오더 코너] ●롯데/롯데 쇼핑 센터2층 779-0723, 771-25(3214) ●신세계/신세계 백화점 3층 778-2729
5-7111●대구매장/대구 남일동 아카데미극장 건너편 23-4659●동아 매장/대구 동아백화점 45-9521~30●부산 매장/부산 광복동 로얄호텔 옆 22-5967

퇴임 교수와 함께 몸은 떠나도…마음은 永遠한 東國人

"인간의 癌연구에 더욱 전념할터"

정년퇴임을 서운해하며 찾아간 孔泰勳박사의 방은 과학관 1층 실험실에 결려진 아주조그맣고 아담한 방이었다. 「모든 인간의 건강과 남자병은 동물생리실험에서 기초를 닦아야하므로 인간의 老化防止와 암퇴치에 진력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동물생리학을 택했는데, 이제 퇴임을 했으니 동물의 암연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암연구에도 더욱 전력하겠다며 오히려 퇴임을 축하해달라고 하신다.

39년 東京 농업대학 예과및 농학부를 졸업하고 69년에 본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근 20년을 한결같이 동국에 몸담았던 교수답은 저작상 전공분야연구에 남달리 힘쓰기도 했다.

유전학의 거두인 멘델은 30세때 교원직원에 투입이나 낙제했지만 자기연구에 전념하고 학문의 깊은 뜻을 깨달아 천재가 아니라 자기연구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노력이라고 말씀하신다.

〈前동대교수·유전학〉

특히 현대의 젊음이들은 정부는 일생을만 계획해서 무분별하게 해나가되 기정세대가 만든 물을에 대해 젊은 머리로 채점, 도전해서 새로운 물질을만들어야 하며 그를 평가절하 수없도록 건강을 위해 해야한다고 강조하신다.

그리고 교수님 자신도 건강을 위해 1평정도의 자갈밭을 만들어 그 위를 뛰어 교간신경의 자극으로 내장 운동을 튼튼하게 하고 또 틈틈이 바둑도 즐기는데 실력은 4급정도라다.

그동안 「올림픽학」등 16권의 책을 저술했고, 20권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제대회도 3번이나 참가하신 귀한 사람이신 인간의 암퇴치에 진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는 설명해보고 싶으시단다.

장원규 알려드립니다. 학위학원교수는 개인적인 일치두려움이 부득이 〈편집자주〉

"깨끗하고 지조 있게 늙고 싶어"

40여년간 교직에 몸담으시다가 이제 교단을 떠나시는 경제학정치학과 洪鍾赫교수를 만나보니 퇴임소감을 묻자 「學問의 세계에선 停年이 없어요. 그것은 人間이 만들어낸 하나의 制度에 불과해요. 가르치고 연구하는 생활은 죽는 순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라고 아쉬운 퇴임에 대해 말했다. 학창시절(延專) 엔 축구선수로서 上海까지 遠征가서 활약했던 洪교수는 젊은이에게 당부하는 말로 「대학 4년동안 적극적으로 써클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며 방학에는 농촌봉사활동 참여 등 인간생활을 하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이는 洪교수는 학교에서 노인대학의 학장을 맡으며 나환자촌을 방문하고 전 방위문제 마을금고의 고문을 맡는등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있다.

〈前문리대교수·경제지리학〉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힘썼고 69년도에는 초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는등 본교발전에 이바지 했었다. 그는 평단한 관심과 인격이 가장 부럽고 또한 이것이 東國人의 참인간 자부심이 아니겠는가 -- 말한다.

그동안 「徐京保詩全集」 「現代人을 위한 宗教講座 시리즈」 을 비롯 180권의 책자를 저술하셨고 철학박사, 문학박사, 교육학박사, 삼광법사, 대종정등이 교수님의 업적을 대변해주고 있다.

「커다란 진리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때 크게 분노할 줄 알고 분발할 수 있어야 하며 항시 연구의욕에 차 있는 大學人이 진정한 大學人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大學人은 禪의 참뜻 의식이 필요하며 「근대과 멸망이 선정의 시련이 됩니다」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하며 東國의 人심을 장조하셨다.

〈前불대교수·불교철학〉

"大學人, 禪의 참된 의미 깨달아야"

1962년 본교에 부임하신 이래 18년동안의 교직생활을 청산, 정년퇴임하시는 「불교의 徐京保(前불대학장) 교수님은 「모교와의 인연은 佛敎의 인연과 같이했기에 더욱 섭섭합니다」 허나 모교의 보직에서 물러남이 나의 학문적 연구나 불교 전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퇴임소감을 밝히신다.

올해만도 日本에 政治大學, 經營大學 예산학원의 명예교수와 미국의 극제대학, 동양대학의 명예교수, 홍콩불교대학 명예대학원장등에 추대되었고 각연구단체의 축전, 개인 서예전등으로 잠시도 쉴틈없이 정년과 후배들을 보내고 있다.

불에 보내는 편지

復學短想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긴 처음이었다. 그때서 울음산이 되고 장송 찔을 하던 목 밖에 나와 있는 D모. 18개월만에 돌아와 다시 잡는 형의 손은 무척이나 따스로웠어.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될것이라며 단호히 결의하는 모의모습은 나에게 있어서도 무척이나 감격스럽운 것이었지. 이렇게 말리 東京에 돌아와 모의 모습을 다시 보게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지.

어제아침 조금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을때 모든 환하게 웃고 있었지. 설레는 마음으로 형의 옆자리에 앉아 귀에 익은 본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는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제야 정말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며칠간의 부산한 일정속에서는 무슨 핵식니. 수속들이 꼭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만 했는데 말이야. 모-형은 그간의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않자며 가슴으로 와닿는 마음의 언어를 주고받자고 하지만 말로 다하지 못하는 사실 말로하면 구차해질 그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10월초순경 동양은 한창 부산해 있었지 관련학문 이라는 것을 한다고 말이야. 뭔히 화가나고 울적해 지던군. 물론 분모! 생각해봐. 연나간 만큼 그렇게 해야만 할 내 자신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지. 그래서 나올날 나는 보통사람이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못으로 곡련가고 말았어. 아이러니하게도 학생이 진짜 군인이 되어있는 문부터라는 곳에서 후배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이야. 기억나지만 그때 난 눈물겨웠어. 그런데 막상 그 생을만 저희해서 무엇이 되어 그를 평생을만 여태 해서 새로운 물질을만들어야 하며 그를 위해 함부가지의 스포츠는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하신다.

그리고 교수님 자신도 건강을 위해 1평정도의 자갈밭을 만들어 그 위를 뛰어 교간신경의 자극으로 내장 운동을 튼튼하게 하고 또 틈틈이 바둑도 즐기는데 실력은 4급정도라다.

그동안 「올림픽학」등 16권의 책을 저술했고, 20권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제대회도 3번이나 참가하신 귀한 사람이신 인간의 암퇴치에 진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는 설명해보고 싶으시단다 〈편집자주〉

安東逸

투고 환영! 동대신문사

단상황의 위원이라는 소위 안보논리를 전제으로 부정하는 것을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 난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생각했어. 그런데 막상 그와같은 잘못된 움직일을 막아야 할 내 자신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지. 그래서 나올날 나는 보통사람이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못으로 곡련가고 말았어. 아이러니하게도 학생이 진짜 군인이 되어있는 문부터라는 곳에서 후배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이야. 기억나지만 그때 난 눈물겨웠어. 그런데 막상 그 생을만 저희해서 무엇이 되어 그를 평생을만 여태 해서 새로운 물질을만들어야 하며 그를 위해 함부가지의 스포츠는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하신다.

그리고 교수님 자신도 건강을 위해 1평정도의 자갈밭을 만들어 그 위를 뛰어 교간신경의 자극으로 내장 운동을 튼튼하게 하고 또 틈틈이 바둑도 즐기는데 실력은 4급정도라다.

그동안 「올림픽학」등 16권의 책을 저술했고, 20권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제대회도 3번이나 참가하신 귀한 사람이신 인간의 암퇴치에 진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는 설명해보고 싶으시단다 〈편집자주〉

수습기자모집

20일 원서마감

한 권력에서 개인은 무력해지고 다만 다행히 구속영장이 떨어질 때만 있어 유치장이라는 곳을 구경할 수 있었어. 일주일은 고독과 비참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가게 되었어. 남이전의 사소한 것처럼이 학자돼 그 때관을 맛보 곧했어. 10월 하순경 나는 세정 두꺼비 착라는 것을 처음 보았어. 그리고 서울구치소 수감소에서 8개월여 있었는동안 친구들 아니 모든 생활의 나태 칠수들을 숙제한다고 생각하기로했어. 그러나 이틀째는 소리 그 변셔,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긴 처음이었다. 그때서 울음산이 되고 장송 찔을 하던 목 밖에 나와 있는 D모. 18개월만에 돌아와 다시 잡는 형의 손은 무척이나 따스로웠어.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될것이라며 단호히 결의하는 모의모습은 나에게 있어서도 무척이나 감격스럽운 것이었지. 이렇게 말리 東京에 돌아와 모의 모습을 다시 보게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지.

어제아침 조금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을때 모든 환하게 웃고 있었지. 설레는 마음으로 형의 옆자리에 앉아 귀에 익은 본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는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제야 정말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며칠간의 부산한 일정속에서는 무슨 핵식니. 수속들이 꼭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만 했는데 말이야. 모-형은 그간의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않자며 가슴으로 와닿는 마음의 언어를 주고받자고 하지만 말로 다하지 못하는 사실 말로하면 구차해질 그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10월초순경 동양은 한창 부산해 있었지 관련학문 이라는 것을 한다고 말이야. 뭔히 화가나고 울적해 지던군. 물론 분모! 생각해봐. 연나간 만큼 그렇게 해야만 할 내 자신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지. 그래서 나올날 나는 보통사람이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못으로 곡련가고 말았어. 아이러니하게도 학생이 진짜 군인이 되어있는 문부터라는 곳에서 후배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이야. 기억나지만 그때 난 눈물겨웠어. 그런데 막상 그 생을만 저희해서 무엇이 되어 그를 평생을만 여태 해서 새로운 물질을만들어야 하며 그를 위해 함부가지의 스포츠는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하신다.

그리고 교수님 자신도 건강을 위해 1평정도의 자갈밭을 만들어 그 위를 뛰어 교간신경의 자극으로 내장 운동을 튼튼하게 하고 또 틈틈이 바둑도 즐기는데 실력은 4급정도라다.

그동안 「올림픽학」등 16권의 책을 저술했고, 20권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제대회도 3번이나 참가하신 귀한 사람이신 인간의 암퇴치에 진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는 설명해보고 싶으시단다 〈편집자주〉

투고 환영! 동대신문사

兄! 먹는 시간과 가족면회시간 5분을 제하고 자는 시간을 빼면 말 그대로 감옥살이인 셈인데 그조 왕하고 외로운 시간에 난 영치시켜준 책을 읽으며 나를 키울수 있었어.

그곳에서는 먹는 시간과 가족면회시간 하루 5분(가다리는 시간·오가는 시간 20여분)을 제하고 자는 시간을 빼면 말 그대로 감옥살이인 셈인데 그 조용하고 외로운 시간에 난 兄이 영치시켜준 책을 읽으며 나를 키울수 있었어.

다행히 내가 있던 방은 나있는 비닐 창이지만 밖을 볼수 있는 창문이 있어 울을 통해 햇살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덧붙여 있어 오후나면 밖에 있는 분노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 소리 그 변셔,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긴 처음이었다. 그때서 울음산이 되고 장송 찔을 하던 목 밖에 나와 있는 D모. 18개월만에 돌아와 다시 잡는 형의 손은 무척이나 따스로웠어.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될것이라며 단호히 결의하는 모의모습은 나에게 있어서도 무척이나 감격스럽운 것이었지. 이렇게 말리 東京에 돌아와 모의 모습을 다시 보게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지.

어제아침 조금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을때 모든 환하게 웃고 있었지. 설레는 마음으로 형의 옆자리에 앉아 귀에 익은 본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는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제야 정말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며칠간의 부산한 일정속에서는 무슨 핵식니. 수속들이 꼭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만 했는데 말이야. 모-형은 그간의 구차한 이야기는 하지않자며 가슴으로 와닿는 마음의 언어를 주고받자고 하지만 말로 다하지 못하는 사실 말로하면 구차해질 그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10월초순경 동양은 한창 부산해 있었지 관련학문 이라는 것을 한다고 말이야. 뭔히 화가나고 울적해 지던군. 물론 분모! 생각해봐. 연나간 만큼 그렇게 해야만 할 내 자신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지. 그래서 나올날 나는 보통사람이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못으로 곡련가고 말았어. 아이러니하게도 학생이 진짜 군인이 되어있는 문부터라는 곳에서 후배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이야. 기억나지만 그때 난 눈물겨웠어. 그런데 막상 그 생을만 저희해서 무엇이 되어 그를 평생을만 여태 해서 새로운 물질을만들어야 하며 그를 위해 함부가지의 스포츠는 필수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하신다.

그리고 교수님 자신도 건강을 위해 1평정도의 자갈밭을 만들어 그 위를 뛰어 교간신경의 자극으로 내장 운동을 튼튼하게 하고 또 틈틈이 바둑도 즐기는데 실력은 4급정도라다.

그동안 「올림픽학」등 16권의 책을 저술했고, 20권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제대회도 3번이나 참가하신 귀한 사람이신 인간의 암퇴치에 진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는 설명해보고 싶으시단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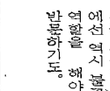
투고 환영! 동대신문사

수습기자모집

20일 원서마감

제부터 현장에 「해방전쟁」 인 학장 최초로 東大신문을 열고 대의원회를 구성, 전학이념에 입각한 불교신자자의 의지를 새롭게 제시했는데, 이날 총회는 참석한 학생들의 만수가 신입생으로 이제 막 대학의 문을 들어선 1학년이 앞으로의 학원 민주화를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하기 도.

대구는 호국단 간부인 佛大대학장과 총무부장이 민주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직후 대행직인 「東大에선 역시 불교대학이 전자적인 역할을 행하지 않겠나」 더러 한다.



회원모집 대자전 「남편 사례」

○…신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각 써클의 치열한 각축전으로, 각종 게시판은 만원사례.

「처음엔 스쳐가는 써클인줄 알았더니,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XX」 등 자극적인 문구의 수십 시간의 프리시한 포스터들으로 프레게 애심 호국이 나날. 색색구려고 각 써클들은 분장이 눈이 등의 학생들 음악 써클 연합 음악 연구회 「세븐 핸드」 하는 교도관의 호봉. 4월식 문화과 시국관련 강연 의 아침 식사 그리고 또 인원 써클연합회 발족… 음지성 써클도 해바라기 기장 진작하는 보지하 경합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 라는 서정적인 써클을 결성하였다는 것이다. 이 써클은

등잔불

尹 盛 根

<1>

찬 바람 가을 저녁
그대 머리 끝을 스치울 때
베라,
네 몸의 풀잎을 베라.
녹슨 槍의 주검에 부치는 이것은
그대와의 시린 입맞춤.
내가 너를 벨 때
차디 찬 反響으로 내게 돌아오라.
내 등 언저리에 날아와 꽂히라.

<2>

일색에 물어있는 낡은 소리여
바람, 흔들리는 地平線 너머
숲에 저린 사내가 집을 찾듯이
헛구역재 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억센 풀잎들이
마주보고 웃고 있는 동안
그들의 몸에 만들어 가는 생채기
수풀 사이로 江村의 불빛이
저항하며 여울져 흐른다.
記憶하는가, 그대와 나는 새벽에
뿌리 뽑힌 채 忘却의 江을 건너왔나니
긴 階階에 서서
격전지를 굽어보고 왔나니.
허리 질끈 동여 맨 나의 女人이여.

<3>

네 볼을 부비면 그대로 눈물이 된다.
돌아서서 너는 버려지고
荒原한 바람에 버려지고
그 바람살에서 마저 버려지고
더러는 물도 되고 불도 되어서
우리들 곁을 흐르거나
불면의 밤을 태우기도 하다가
저 몸 아파하는 목숨.

<4>

아아, 이제 그만 묻어두자.
함부로 散在한 돌멩이와 흙들을 묻어와
여기 땅 깊이 잠재우자.
그리하여, 내가 다시 죽음 맞을 수 있도록
젖은 땅 위에 몸 누일 수 있도록.

<慶州大 國文科>

「이상한 예복」 차림의 敎授님 보고 大學실감

"대학은 낭만의 殿堂이며 自律의 동네일 것"

宋 敬 錫

Ⅰ

유난히도 오늘 아침햇살은 따스하지. 하늘도 더욱 높아진 듯, 어제까지 크게 보이기만 했던 전 대학이란 동네로 이사해 가는 날이기 때문이지.

「환 1980년도 입학」이란 커다란 현수막 이 교문위에 있었지. 이 것 또한 나를 설레이게 하고 호기심을 일으키기엔 충분하였지.

이제 입학식이 시작되었지. 이상 야릇한 예복 차림의 교수님들을 뵈니 나에겐 무엇인가가 흐느적거렸지. 그 후 정신을 차리고보니 입학식이 끝났지.

Ⅱ

왼 손에 연필 두어자루를 쥐고, 오른 손으론 강의 교재 한 권과 타임紙 한 권을 가슴에 붙여서 버스에 껑충뛰어 오르는 어학생, 저녁 나절 골목길에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고 비틀거리는 남학생처럼 볼품 없이 커다란 현수막 아래 처음으로 참가하는,